

# news

## 이현재 신임 중소기업청장과 간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 4월 6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이현재 신임 중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협회 조현정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벤처산업육성에관한특별법'의 기한 연장, 창업 및 지방벤처 활성화 정책 등 벤처업계의 현안을 건의했다. 이에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내년 말 만료되는 '벤처산업육성에관한특별법'의 기한 연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까지의 성과와 실태를 분석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창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대학·연구소가 쉽게 자회사 형태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소가 그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이 제안한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과 연구소는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직접 자회사 형태의 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기술거래·이전 사업과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집적지역 등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그 동안 불가능했던 대학 및 연구소 소유 용지에 일반인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을 지정해 창업을 활성화할 방침을 함께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 조현정 회장과 이현재 중기청장 및 창업벤처국장 등 중기청 벤처산업 정책관계자들과 협회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 정부출연 기관의 특허기술 이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정 체결



협회는 지난 4월 4일, 정부출연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거래 및 이전을 통한 벤처 산업 내 기술확산을 위해 KETI, KAIST, ETRI, 웰처기술과 공동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정을 통해 KETI, KAIST, ETRI는 특허기술의 공급자로서 2000여 건의 IT관련분야 특허기술을 제공하고, 협회는 회원사와 각 특허기술의 매칭으로 기술 이전과 거래를 유도하게 된다. 웰처기술은 이러한 기술거래 에서 특허조사 및 시장성 분석으로 매칭된 기술과 기업에 대한 컨설팅으로 특허기술 지원과 매칭의 산업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날 협약을 함께 체결한 한국산업은행은 기술 매칭과 이전 과정을 통해 특허기술을 산업화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최고 5억원의 초기 기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날 협약은 협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실장 황춘식), 한국과학기술원(팀장 최태웅), 산업은행 기술평가원(원장 이귀재), 전자부품연구원(본부장 안석현), 웰처기술(버리사 김희곤) 등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체결했다.

## 한국증권업협회와 업무협정 체결



협회는 지난 4월 13일,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프리보드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협회는 회원사 중 유망기업의 추천과 벤처기업에 프리보드를 홍보하고, 한국증권업협회는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기업의 프리보드 지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협회와 한국증권업협회는 협정식에서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건의하고,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행사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프리보드 지정 기업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신증권(대표 김대송), 교보증권(대표 최명주), 미래에셋증권(대표 최현만) 등 증권업계 대표들도 참석해 향후 벤처기업의 직접금융활성화 지원을 위한 증권업계의 적극적 역할에 대하여 논의했다.

## 경남벤처기업협회 발족식



협회는 지난 4월 6일, 협회 경남지회로 출범하는 '경남벤처기업협회' 창립총회를 창원호텔에서 개최했다. 경남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창립준비위원장인 하종근 월드파워텍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경남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확인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됨에 따라 권익단체를 구성해 지역벤처기업들을 대변하고, 정보교류를 통해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김태호 경상남도 도지사과 이승훈 중소기업청 차장을 비롯해 전대열 협회 상근부회장 및 박완수 창원시장 등 경남지역 기업 내외 인사들과 벤처기업 대표 150여 명이 참석했다.

## 중국 연길시당위 서기관 일행, 협회 방문



지난 4월 14일, 중국 연길시당위 서기관을 비롯한 연길시정부 부시장, 경제개발구 국장 등 8명의 연길시 경제 방문단이 협회를 찾았다. 연길시 경제 방문단은 방문 자리에서 연길시 국내 벤처기업의 생산기지로서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에 맞춰 협회는 연길시에 국내 벤처산업 및 관련 정책을 소개해 연길 신산업정책의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현정 회장, 전대열 상근부회장, 전하진 부회장, 오병운 INKE 중국심양지부 의장이 협회를 대표하여 자리를 함께했다.